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11월 8일

MTA 맨허턴선 운행 재개

브루클린 맨허턴선 복구 작업 기간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는 브루클린과 맨허턴 사이의 L 열차 운행을 일부 재개했으며 Rockaway Parkway에서 8th Avenue까지 거리를 연장했습니다. 14th Street 지하철 운행을 재개함에 따라서 Williamsburg, Bushwick, East New York 및 Canarsie의 주민들을 맨허턴과 연결하게 됩니다.

L 열차는 3 p.m.에 14th Street 구간 운행을 재개했으며 8th Avenue와 Broadway Junction 구간 사이에 위치한 역들이 10분 간격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해당 지하철 구간은 3,400 피트 구간이 15 피트의 깊이의 물에 침수되었습니다. MTA 직원들은 하루 24시간 물을 뽑아 냈으며 심각하게 파손된 해당 지하철 구간의 고정 펌프, 신호 및 통신 시스템을 보수했습니다.

"우리는 운행의 완전 재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운행 재개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전이 확실하고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시점에서 운행을 완전히 재개할 것입니다."라고 MTA Chairman 겸 CEO인 Joseph J. Lhota는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Hurricane Sandy에 의해서 파괴된 Rockaways와 브루클린의 Sea Beach Line의 운행 재개를 위해서 더 많은 작업을 해야 합니다."

Rockaways의 A선과 8th Avenue와 Coney Island 사이의 N에 위치한 Sea Beach Line은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이러한 구간들이 언제 운행을 재개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로 작업자들이 운행을 최대한 빨리 재개하기 위해서 매일 24시간 작업하고 있습니다.

Montague Street 지하철 구간에서도 계속 펌프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구간이 마르면 작업자들은 피해액을 조사하고 맨허턴으로 운행하는 R선의 복구에 필요한 보수 작업을 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